

『경제회생은 정보화가 앞서가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세기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 20세기까지 산업화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산업시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경제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본가와 기업가가 말하자면 이것을 참여해서 운영하는 노사의 시대, 보수와 혁신의 시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제6의 혁명의 시대, 다시말하면 지식정보산업의 시대, 그런 지식정보화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핵심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품종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소량생산시대 그리고 이런 자본가나 노동자가 지배하던 경제체제로 부터 지식인이 지배하고 각 개인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경제체제,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이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살아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 것에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세계경제는 산업혁명 이래 유지되어 오던 국가중심의 국민경제로부터 이제 세계를 하나로 하는 세계경제시대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WTO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6년이면 경제에도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존을 여기서 말하자면 세계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개척해 나가야 하는 이때에 불행히도 외환위기에 걸려가지고 IMF의 통제를 받고 그 지원없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은 두가지인데 이 외환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서 두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출을 증대해서 우리의 외화수입이 늘어나서 빚을 빨리 갚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외국투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빚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환정책이 잘못된 것은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고 외국빚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러한 수출의 증대 그것도 실 가득률이 높은 실효성 있는 부가가치높은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 외국투자가 우리나라에 가까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정보산업의 기반을 확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정보산업을 우리가 확충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부가가치를 얻어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외국자본들이 여기 와서 매력을 느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는가 이런 등등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통신부가 다른분야도 중요성이 많지만 우리의 당면한 IMF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미국이 일취월장이라는 말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초고속도로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를 미국의 정보하이웨이가 지배하고, 미국의 정보산업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미국 영화가 세계극장의 영화관 수입의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

서 우리가 정말 결심을,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이 정보화시대를 빨리 들어 가지 않으면 여기서 낙오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중략)

국가의 조직을 혁신해서 높은 능력과 그리고 효율성을 내려면 정보화를 국가 전체 분야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부는 또 정보화사업은 수출과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건인차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속에서 성공해 나가는 그러한 저력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보화 마인드 이런 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업무보고시) 컴퓨터교육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몇몇 국내의 저명한 문화계의 인사들이 문화비평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전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우리가 볼 때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사람들이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적용해 나가는 하나의 한국사람들의 마음 경향이 여기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IMF시대가 나온 뒤 보니까 신문들 중에서는 학생들까지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쓴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문화계분들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인데 나는 그 문화계분들 주장에 편들고 싶어요. 좌우간 손에 핸드폰을 끼고 다니면서 정보화사회와 상통하는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1인 1PC사회를 만들어야 하겠고 또 모든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컴퓨터를 갖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중략)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 정보화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하나는 국민들의 참여, 이 둘이 맞아 떨어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그리고 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보계통산업은 꼭 합작투자,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고 없고 간에 합작투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권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우수한 경영기법도 배우고 그것이 오면 자연히 해외시장도 같이 가지고 오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의 투명성도 해결됩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되면 정경유착도 없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정보분야의 합작투자 같은 것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2위권(정보화 수준)이라는데 10위권으로 진출하는 것 2002년까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정보통신부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서 선진대열에 등장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면 그것을 해 낼, 말하자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산업 이것이 21세기를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부탁하고 건투를 빌면서 내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98.4.17 정보통신부 주요업무보고시 대통령 인사말씀 중에서)